1. 국사업 평가

▶1년 목표(없었다면 중간중간 목표)

1년을 해야겠다고 고민하고 처음 시작하면서는 가장 큰 목표는 집장으로서 중앙의 일심단결을 이루어내자는 맘이었던 것 같습니다.(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리..) 어쨌든 8기 전여대협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사업하고 투쟁해야겠다는 것이 그닥 크게 없었습니다. 그저 중앙의 일심단결이 보장되어야만 사업과 투쟁이 다 잘될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진행하면서는 집장이라는 역할의 더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느껴졌으나 그 후로 그것을 다시금 목표로 잡기는 여러운 상황(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거나, 개인적으로 힘들때라거나)이었습니다. 또하나의 목표는 의장님의 보위보좌를 잘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집장이라는 역할도 그러려니와 개인적으로 자신도 있었고 의장님의 활동이 학교,대경과 함께 하기로 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얼마나 성사되었습니까?

첫째 일심단결 문제에 대해서는 성사되었는지 어땠는지를 평가하기가 참으로 애매합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다들 함께 하게되고 큰 어려움 없이 1년을 살아온 것이 그것인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라면 개별개별 고민들이 참 많은 때에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에 대한 좀더 깊은 사색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더 고민이 깊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의장님 보위보좌 문제는 일단 의장님의 연행과정에서 큰 과오를 적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총화하고 보위보좌하는데 있어 좀더 의장님을 전여대협의 구심으로 대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나섰다고 봅니다. 보위보좌하는데 어려움이 나섰을 때 학년차의 문제나 성격차이의 문제등을 앞세우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의장과 집장의 관계는 연인사이 같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시콜콜한것부터 깊은 고민까지 모두 다 총화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장과 집장의 관계여야하며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중앙간부의 일심단결도 이루어내고 또 이런 힘을 바탕으로 전체 전여대협 일군들의 일심단결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맡은 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첫 번째, 집장의 가장 중요한 지위와 역할이라면 전여대협 전체 방향 속에서 사업투쟁에 대한 방향실정 그리고 그에 대한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앙간부들의 일심단결과 의장님에 대한 보위보좌입니다.

▶국사업의 성과와 한계

위부분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평가를 해보자면 (1년주체총화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의 역할수행은 일단 전체운동의 감을 높이거나 전반정세를 파악하고 고민하는데 일정 아쉬움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전반 고민하는데 있어 미리 고민하여 제때제때 제출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되지 못한 지점이 존재하였던 것 같습니다.(이후 8기 전여대협 평가에서 더 논의되야겠죠) 상반기때는 그래도 총회를 빠르게 만들어낸것이나 출범식도 한달가량 빨리 치러낸것, 40일비상 등 성과적인 지점이 많이 있으나 하반기가 많이 아쉽습니다. 중앙의 조직적 토론이 담보되지 못했던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전여대협이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잘하고 있는 지점을 간파하고 더 성과를 높힐데 대해 고민해야하고 그리고 특히 잘 풀지 못하고 있는 사업과 투쟁이 있다면 그것을 핵심적으로 딱 포착하고 끄집어내어 주체들이 더 깊이있게 고민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그러던 부분에 있어서 그저 단에 고민하지 뭐, 주체들이 먼저 고민해야지 뭐 등의 식으로 고민하면서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역할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의 일심단결과 의장님 보위보좌에 관한것인데 앞서 목표 성사 부분에서 서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1년동안 가장 큰 성과는 8기 전여대협이 다시금 한발자국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중앙동지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한계는 여름에 적절했던 비조직적 행위들이 전여대협 집장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가장 큰 과오였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의 역할 수행은 첫 번째가 담보되야지만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왜냐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의 부분은 해결했다하더라도 단기간으로 될 수 밖에 없으며 다시 또 발생하게되는 부차적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한해 살면서 솔직히 두 번째에 더 큰 중점을 두었지 첫 번째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장이라면 이제 첫 번째에 주된 중점을 두면서 두 번째 문제를 결합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지도사업 평가

1) 주체에 대한 총화

▶지도사업 준비과정

지도사업 준비과정은 일단 가기전에 지도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지도사업 기간에 날짜별로 어디어디를 갈것인지를 짜고 지역에 미리 연락을 해서 그 날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련을 하고 지도사업 내용을 미리 마련하였습니다. 지도사업 주된 내용은 같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특이하게 또는 지역상황에 맞게 총화해야할 내용을 첨가하여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도사업 방법

지도사업 지역에 가서 지역여대협을 먼저 만났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저녁에 도착해서 먼저날은 간단한 술한잔과 함께 총화도 대충 들어도 하고 그간 서로 개별적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스케줄에 총화를 하고 회의시간을 잡았습니다. 상식회의시간을 통하여 지도사업 전달하고 지역총화를 듣고 지역에서 더 고민해야할 지점을 같이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담화해야할 일군이나 가봐야할 대학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골간일군들과의 담화는 중앙에서 꼭 챙겨주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항상 빼놓지 않고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일군은 실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점에 두고 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여대협에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여대협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투쟁이 일정 방치되는 현상도 없지 않았습니다.

▶학습 지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하자고 제안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하반기정도였습니다. 상반기는 큰 사업과 투쟁 때문에 지도사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지 못한 한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학습지도를 잘 해볼려고 했으나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전김총화

?

▶주체의 성과 한계, 과제

평가를 해보자면 전반성과지점으로는 첫째, 선거결과 상황을 놓고 보면 기본정도만 진행한 상황입니다. 대학건설상황이 올해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큰캠에서의 건설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운지점은 이후 전여대협의 과제로도 남겠다싶습니다.

둘째는 지역여대협이 두군데 안정적으로 세워진 것이 큰성과라 보여집니다.

올해는 간부 한명씩 조금은 불안정하게 지역여대협이 존재했으나 내년 간부길의자들이 지역 두군데에서 두명씩 있다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그만큼에게도 성과로 남겨집니다. 그러나 1년동안 지내오면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더 깊이있게 고민되도록 하고 적극성을 발휘하는데는 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쉬운지점은 첫째, 지역과 대학에 대한 지도가 더 폭넓게 확대되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앞서도 좀 말했다시피 하반기 지역지도에 있어서는 사업과 투쟁에 대한 지도가 깊이있게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많은 사업과 투쟁에 매몰되어 지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들어 안정적으로 되었으나 대학과 기층까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정세토론이나 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이 개별일군에 대한 담화와 정치사업으로 깊이 있게 되지 못했습니다.

정세토론과 학습을 진행하자고 제안은 했었는데 실제 진행하지 못한게 큰 아쉬움입니다. 그러다보니 일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대중마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중의 의식정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고민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중요성을 적부터 작인하지 못한 문제와 직접 집행하는데 나서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도사업의 가장 큰 목표이자 요한 문제인 일군들의 사상의식을 틀어쥐고 정치사업을 선행하는 문제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후 큰 과제로 남습니다.

1) 주체에 대한 총화

① 지도사업 준비과정

주로는 지도사업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각 대학의 계획 및 흐름에 대해 고려하여, 크게 지도사업의 내용을 간추린다. 그리고 대부분 이동시간 중에 지도사업의 내용을 목록별로 정리하여 간다. 이동 중에 지도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내려간 적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때로는 학습계획을 세워서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계획을 세워 이메일로 보내주고, 직접 대학에 가서 같이 논의하기도 했었다.

② 지도사업 방법

그다지 일정한 방법은 없었다.

상반기에는 기층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기층을 최대한 만나고 나서, 총여 핵심일꾼들을 만나고, 회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의를 함께 하면서 지도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주로 진행했다. 기층이 없는 대학의 경우에는 총여 핵심일꾼들을 만나고, 회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의를 함께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방법으로도 자주 지도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도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반기에는 주로 총여 핵심일꾼들을 만나서 짧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회의보다는 편한 담소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다.

③ 가장 중점에 두고 한 것이 무엇인지

④ 학습 지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⑤ 점검총화

그리고 지도사업 다녀와서 이메일로 다시 정리를 해주거나

⑥ 주체의 성과 한계, 과정

2) 대학 총화

① 일꾼 개개인의 준비정도는?

② 단위에서 지도사업을 할 때 가장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③ 일꾼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했는지 총화되는만큼

④ 일꾼들이 가장 혁신해야할 것이 무엇입니까?

⑤ 각 대학 성과 한계

1.국사업 평가

1년 목표 (없었다면 중간중간 목표)

전문성 강화와 사상성 강화(연관성 있게),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 보강, 각 대학 및 전여대협 중장기적 조직 발전 전망 수립, 학습 강화, 한총련 내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가져가는 것.

목표가 얼마나 성사되었습니까?

전문성 강화와 사상성 강화의 측면에서는 교양자료를 시기에 맞게 제출하였으나 계획대로 다 제출하지 못했고, 실제 단위에서 내실있게 학습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보강을 위해 전여대협 출신 선배 및 한총련 간부와 담화하는과정이 있었으나 그 이후의 고민이 깊어지지 못해 진척되지 못하였다.

각 대학 및 전여대협 중장기적 조직 발전 전망 수립에서는 총노선에서 그리고 각 대학 지도사업과 조직국 모임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중장기적 계획과 전망 수립의 중요성을 각인하게 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체계적, 통일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흐름이 상승 발전되지 못하였다.

학습강화 측면에서는 총노선에서 학습에 대한 중요성과 계획에 대해 강조하고 학습자료 제출과 매 시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기층에서는 학습 주체의 부재와 조직생활이 안착화 되지 않고 일정을 쫓아다니며서 학습이 꾸준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총련 내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가져 가는 것은 먼저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 결합하였고 그 속에서 운동사회내 성폭력에 대한 문서를 함께 토론하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조직국 라인에서 다시 토론을 확산 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후에는 한총련 전원회의 및 각 국별 전국회의에 결합하여 전여대협의 정책을 해설하여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됨.

자기가 맡은 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먼저 한국 사회에서 여학생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사상적 중심을 잘 잡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색과 연구를 강화하여 사상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기시기 별로 일꾼들이 사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에 맞는 교양자료 제출 또는 학습을 진행할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전여대협 조직강화.

그러기 위해서는 기층에서 중앙까지 조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을 길러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부터 신심을 높여내는데 까지 필요한 학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핵심일꾼들은 핵심답게 고민을 높여가기 위한 학습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층 건설을 위해 실정에 맞는 방법과 내용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방도로는 현재 수준에서는 여학생회의 자체 조직사업(소모임), 기층 학생회(과, 단대)에서 주체를 세워내는 방법(단여부,과여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골간과의 사업도 중요한 영향이 있는 만큼 한총련 내에서 여학생회의 중요성, 조직강화의 중요성을 공유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사업의 성과와 한계?

2. 지도사업 평가

대경지역 지도를 2년간 하였던 만큼 대경지역을 중심으로 총화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지도할때도 기본적으로는 대경지역과 마찬가지고 지도사업을 하였으나 안정적이고 흐름성 있게 지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1) 주체에 대한 총화

지도사업 준비과정

중앙에서 회의를 마치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까지를 고민하고 지역과 대학의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도사업 방법

1)지역 지도:

- 지역총련: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 흐름속에서 대학지도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 총련 필요시에 전원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지역의 운동 흐름을 파악하고 여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판같은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 여학생회의 상황에 대한 총화도 해주고 지역에서부터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총련 전원회의와 지역총련 중앙위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교양과 토론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자료만 전달하고 교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반부터는 일정이 안맞는 날이 많아 회의결합은 하지 않고 필요시에 집장 또는 대학 지도사업자와 서로 총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여학생회 : 지역 여대협이 없는 만큼 대학간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1.2월에는 대표자 모임을 진행하였고 그 속에서 핵심일꾼까지 확대하여 정기적(매달 2회)으로 회의와 학습을 진행하자라는 결정에서 핵심일꾼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제하시고 저는 준비하고 영대, 경산대, 경북대,경일대가 결합하였습니다.

전여대협 중앙의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도 논의하고 정세에 맞는 학습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대학을 돌며 구체적인 상황 총화와 지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의 상황이 아주 열악하고 비교적 자주 진행하다보니 일정이 잘 안맞에 모임 성원이 전부 결합하는 경우가 희박하여 (학교 일정이나 모임 장소가 거의 영남대라 경북대가 결합률이 많이 떨어졌음.) 중반기에는 영대와 경산대를 함께, 경북대를 따로 지도사업하다가 경산대의 특수성(총학생회가 없어 총여학생회 일정이 매우 바쁨) 때문에 하반기에는 모두 따로 지도사업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는 대구대와 경일대를 거의 가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 지역 여대협이 없다 보니 단체들이 학교로 바로 연락이 취해지면서 각 대학의 공동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보다 따로따로 일정에 쫓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미 여성회에서 영대를, 정시모에서 경북대를 따로 만나면서 지역사업으로 되면 좋을 사업들이 대학의 부담으로 되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을 만나볼 고민을 하였으나 정시모에 몇번 찾아가서 각 대학에 함께 할만한 내용을 공유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2) 대학지도

초반기에는 핵심모임 중심으로 지도사업할 내용을 전달하고 결합하지 못한 대학과 특별히 가야할 대학을 돌았습니다. 대구대는 주체의 준비정도상 핵심모임에 결합시키지 않고 따로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일정을 잡고 가능하면 회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이 조직생활이 안착화 되지 못하므로 기본적으로는 대표자와 핵심일꾼이 함께 논의할수 있게 시간을 잡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안맞으면 대표자만 또는 핵심일꾼만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학일꾼 외에도 골간일꾼과도 총화를 하였습니다.

경북대는 사범대 조직일꾼을 주로 만나 함께 고민하였고 영대는 총학생회 부회장님 또는 조직일꾼을 만나 총여상황 총화 또는 나서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모임이 진행되지 않고 대학에서 학습이 담보되지 않는 관계로 대학 지도사업시 대학 상황에 맞게 학습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당 1~2회정도 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운동의 역사, 동지애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점에 두고 한 것이 무엇인지

일단 지역의 수준과 상황이 열악한 관계로 지역과 대학의 상황에 맞게 중앙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학습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사업을 진행할 때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각 개별 일꾼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개별담화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년 내도록 조직상황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계속 되었는데 함께 고민해주고 다시 힘을 주는 것에 노력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학습 지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자체적으로 일상적 학습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학 강의를 자체적으로 학습할 것을 이야기 하였으나 대학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핵심모임을 진행할 때 3.8세계 여성의 날.비정규 여성노동자, 일본군'위안부'. 특별법 관련, 페미니즘에 대하여, 성폭력 정도... 진행하였는데 거의 영대와 경산대만 결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도사업시에 대학 상황과 수준에 맞는 함께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각 대학당 1~2회 정도 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운동의 역사, 동지애 . 또 뭐였드라..? 기억이 잘 안나네요.

점검 총화
안정적인 지도사업이 못되다 보니. 점검 총화가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도사업을 하고 나면 중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과만을 총화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뒷북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지도사업속에서 중간 점검이 아주 중요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도를 하고 중간 점검을 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다면 나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함깨 풀어주고 다시 힘을 내어 밀어부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체의 성과 한계, 과제
먼저 지도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았으나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내실있는 지도가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지도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비해,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1~2주에 한번정도 들르면 전달할 사항 전달하고 대학총화하는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야기는 많이 하였으나 자주 들르지 못하다 보니 오랜만에 가보면 그냥 대학사업 이외에는 진행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지도사업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으로는 먼저 지역여대협이 없는 상황에서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지도가 되기가 힘들었고, 지도사업자가 이악스럽게 지도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주체의 성과 한계는 일단 분공과 지도사업에 대한 시간을 배치하고 나면 분공을 수행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도사업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다가 준비가 안되서 학습을 다음으로 미룬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체의 신념과 실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큽니다.
성과 지점으로는 아래 주체 총화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2) 대학 총화
영대 경북대 경산대를 중심으로, 대구대와 경일대, 계명대도 가능하면 지도사업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 세 대학은 총학생회 또는 자주적 단대 학생회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단 만나보면 주체를 세울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꺼 같거등요. 지도 사업할 여력이 되고 주체가 설수 있는 상황이면 지도사업 하면 좋겠습니다.

일꾼 개개인의 준비정도는? (총화되는 만큼 다 써주세요)
영대 : 긍정적 지점은 핵심 단여 회장들이 여학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여학일꾼들이 사상학습과 여성학 학습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 다. 희연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몇가지 여성학 책을 읽은 것으로 아는데 암 튼 전반적으로 학습주체가 없고 학습체계가 서있지 못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특징이 적극성과 창발성이 뛰어납니다.
경북대 : 윤주는 사상학습과 여성학 학습이 비교적 진행되긴 하였으나, 아직 훑는 수준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 고민과 관점은 괜찮으므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고민을 한단계 더 끌어올려주어야 할꺼 같습니다.
특히 자주적 사업방법과 민중적 사업작풍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 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과학적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외 대학과 일군들은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일꾼들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경북대 정윤주 : 018.689.1456
영남대 정은하 : 018.503.6749
경산대 남명희 (2002년 총여 부회장) : 011.9857.8823

단위에서 지도사업을 할 때 가장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기반을 다져야합니다.
조직생활 안착화, 그 속에서 일상적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요구됩니다.

일꾼들이 어느정도 학습을 했는지 총화되는 만큼 써주세요
윽.... 위에 적었어요...

일꾼들이 가장 혁신해야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상황이 어렵다고 힘들어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혁명적 낙관성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을 높이는 것이 혁신해야 할 과제입니다.

각 대학 성과 한계
영대: 그간 영대 여학생운동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여학생운동의 전문성 이었습니다.
올해는 대중사업을 통해 다양한 여성문제를 학우들과 함께 나누는 성과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전체 운동과 여학생운동이 결합되어지는 부분에서 고민이 높지 못하여 대중사업 따로 전체 투쟁에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경향이나. 여성문제를 학우들에게 의식화 시킬때에도 뷔페처럼 이것저것 맛보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전체운동과 여학생운동의 중심을 잘 잡고 잘 결합시키는 것과 여성문제에 대해 좀더 높은 고민속에서 학우들과 함께 할 것들을 고민해야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사업의 긍정적 지점과 한계.

2002년 전여대협 중앙 간부로써 결의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했던 것은 의장님을 잘 챙겨드리는 것과 중앙의 조직생활이 동지애적으로 끈끈하게 될 수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국장으로써 기층 총여학생회들이 조직사업을 내실있게 잘 가져가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고 많은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대 의장으로써 의장님을 잘 챙겨드리는 것은 일단 대경지역을 지도사업하면서 의장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처음에는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고 고민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되었는데 개인적인 고민이 많이 생기고 힘들어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의장님의 집안고민을 함께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부족해지고 방심하게 되면서 의장님께서 연행되었던 큰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간부들과 조직생활을 잘 가져가는데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조직생활을 이끌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조직생활에서, 그리고 회의 공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자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갈수록 수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표자의 지위와 역할에서 간선간부로의 변화가 알게 모르게 적극성을 떨어지게 했고 관성화되어 가고 거기다가 집안문제 등 개인적인 고민이 생겨버리면 조직과 동지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 개인적 고민에 빠지면서 조직에 오히려 부담만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 조건의 변화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신념이 부족해서 제때에 잘 극복해내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국장으로써 역할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먼저 목표는 전문성 강화, 사상성 강화,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보강, 그리고 대학에서의 중장기적 조직전망, 계획과 구도를 수립하게 하는 것, 그리고 혁명가의 첫째가는 임무인 가장 기본인 학습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 한총련 전체적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정도를 높이기 위해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 결합하여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적인 부분에서 진행했던 올해의 활동은 총노선을 고민하고 매 시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시기에 맞게 학습계획과 내용을 제출하는 것, 자여론 보강을 위해 전여대협 출신 선배, 한총련 간부와 담화를 하였던 것, 두 번의 전여대협 조직국 전국회의를 진행하였던 것, 너댓번의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 결합하여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 정도입니다.

총노선을 마련할 때 즈음만해도 다 잘 할수 있을 것 같았으나. 주체의 경험부족과 준비정도의 부족, 즉 실력의 부족으로 인해 계획의 구체적 실현 경로에 대한 고민이 진척되지 않고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신념의 부족으로 제때에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서 고민의 흐름이 끊어진 영향도 컸습니다.

-성과점이라 하면 기층에 학습의 중요성, 중장기적인 목표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준 것, 학습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기층에 부족하나마 교양자료를 제출해 준 것 등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적으로 성과를 남기는데는 많이 부족하였으나 자여론 보강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 담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고, 교양자료를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기층에 도움을 주게 될 뿌듯함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더욱 많을 것을 배우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의 전여대협 조직국 전국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대학 핵심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핵심의 역할을 서로서로 다시금 각인하게 되고, 조직사상사업에 대한 점검 총화를 함께 하면서 서로 결의를 더욱 높여주었던 성과,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속에서 창조적인 생각들이 수렴되고 거기서 책읽기 운동이라는 좋은 사업이 나오게 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를 결합하면서도 처음에는 전여대협 조직국장이 이 공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것인가 제대로 고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늦게 결합하였지만, 여학생운동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면서 운동사회내 성폭력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리 내실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처음으로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성과는 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국장으로써의 성과는 아니지만 지역 지도사업자로써의 성과도 일정 있습니다.

대경지역을 2년간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 지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지도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지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지역여대협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장님과 함께 지역 핵심일꾼 모임을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진행하였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지도사업 내용뿐 아니라 시기에 맞는 학습 진행 지역 여학일꾼들의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과 투쟁을 고민, 지역 여학일꾼들의 관계가 돈독해 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경 총련 출범식 무대에서 대경지역 여학생회의 판을 진행했던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지역총련에 제안하고 회의에 결합하여 함께 토론하고 각 대학 여학생회와 논의하여 분공하여 당시 정세와 관련있는 일본군 위안부 영상상영, 일꾼들의 힘을 모은 카드섹션, 그리고 각 대학 여학생회 회장님의 정치발언으로 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대경지역에 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의 흐름이 없어 지역총련 동지들 사이에도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였던 상황에서 지역 총련 출범식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해 의식화 하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 어려운 조직상황이지만 학교간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경험이 정형으로 남을 수 있는 성과,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지역총련과의 사업, 기층과의 사업으로 성과적으로 마무리 한데에 대한 아주 큰 보람과 성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제 핵심일꾼 모임의 한계가 보이면서 각 대학별로 수준과 상황에 맞게 따로 지도 사업과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계획대로 학습을 많이 진행하지는 못하고 각 대학당 1회에서 2회정도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기간 기층과 함께 학습을 진행할것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으나 실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실제 학습을 진행하고 기층에 도움을 주었던 성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성과는 평생의 동지가 생긴것이라 할수 있을까요? 2년간의 지도사업과정에서 믿음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 사람의 운동을 책임져 주고 싶은 일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일했던 의장님과 중앙간부들도 그렇고 학교 일꾼들도 평생을 함께할 동지들이지만, 그리고 모든 학교 모든 여학일군에게 애정이 가고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에 많은 반성과 미안함이 들지만, 2년간의 지도사업속에서 정말로 이사람 만큼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도움주고 싶고 책임져 주고 싶은 일꾼이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지는 못하겠지만 자주 연락하면서 챙겨주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올해 1년은 전여대협 조직국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감을 잡고 시작을 조금 해놓은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가능성들을 어느것 하나 성과로 올곧게 만들어 놓지 못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대해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했던 것은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조직국의 역할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시기 시기별로 일꾼들이 사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도 또는 교양자료를 제시해주어야 했는데, 뒤늦게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실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혀 그러한 활동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교양자료 제출, 지도사업만으로도 많이 버거워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주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하지 못해 조직에 많은 걱정과 부담을 주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체의 신념과 실력의 부족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신념으로써 극복하고 전여대협 중앙간부라는 인식을 한시도 놓치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과오도 많이 저질렀지만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이후에는 신념과 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조직국 1년 사업계획

1)전여대협 조직일꾼 회의 (필요성과 목표)

1.자여론 보강 정립 – 여학우 2011

전국회의 핵심대학 중심

1학기까지 완료

여름수련회 때 전체 토론 후 합의

2.조직사업 총화 계획(조사영역 모든부분 점검, 과제 제시,)

3.교양꺼리 제출

작년 평가와 토론안 검토해야....

핵심대학 설정 : 모범창출

서: 경희대

대경: 영대

남 : 전대, 조대, 지역 간부

부경: 동아대, 부산대, 지역 간부

제주: ?

일반적지도를 개별적 지도보다 앞세워야?

2)한총련 10개과 모범창출 운동을 함께 하자

기층 과에서부터 올바른 학생운동의 정형을 만들어 보자 (모범 창출)

실사작업, 한총련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발특위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보자.

3)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 결합

필요한 토론

6.15공동선언의 여성적 의미(6.15시대에 맞는 여성과 통일)

여학생운동은 부계운동인가?

여학생운동과 전체 변혁운동과의 관계

조직일꾼회의

1.자여론 보강 정립
작년 자여론 보강 사업의 평가 속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중상에서 검토.

2. 조직사업 총화 계획 (조사영역 모든부분 점검. 과제 제시)
기준은 총노선
총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단위 점검 총화, 강제
단위에서 나타나는 관성적인 사업작풍을 짚어내고 과감하게 혁신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마련
단위의 장기적인 조직발전 전망 총화와 강제
단위 핵심간부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모임, 과여부 건설 관련
학습, 조직생활 총화,
현황, 원인분석, 과제 대안 마련

2달에 한번 정도: 5월 출범식 즈음
7월 수련회 즈음'
9월 선거들어가기전 즈음 ; 1년의 조직 사상운동 평가, 전망 고민

핵심대학 설정: 모범창출
서: 경희
대경 : 영대
남: 전대, 조대, 남 간부
부경; 동아대, 부산대, 부경간부
제주?

3. 교양꺼리 제출
조직국 회의의 내용을 보면서(조직사상운동의 현황속에서) 필요한 교양(문서)제출

일반적 지도를 개별적 지도보다 앞세워야..???

조직국회의

1. 조직사상운동 중간 총화

- 2002년 전여대협 총노선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조직사상운동의 중간총화를 진행합시다

<사상적 과제>

1.전문성 강화
1)여성정세 인식력을 높이자.
①여성에 대한 기사, 여성계 흐름,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총화하자(메일 종례시 통신총화)
②정기적인 정세토론을 진행하자.
③주체적 관점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자.
2)사안별 투쟁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자.
3)체계적인 여성학 학습을 강화하자.

2. 사상성 강화

3. 자여론 보강
1)전문성을 강화하자.
2)지난해에 진행했던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내용을 공유합시다.
3)4월과 6월 두차례 토론과제를 도출하여 전국적으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토론을 진행합시다.
4)여름 방학 수련회 때 한단계 더 발전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완료합시다.

4. 자여론으로 무장하고 향기나는 일꾼이 되자.

5. 새내기들의 사상의식 수준을 " 더 빨리 더 높이"
1)여성문제에 대해 학습·토론시 낮은 수위부터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해 일깨워주자.
2)매월 역사적인 날(4.19/5.18)에 대한 교양토론을 빠뜨리지 말고 진행하자.
3)2학년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철학, 우리사상에 대한 기초학습을 진행하자.

6.구체적인 학습계획

<조직적 과제>

1. 전여대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자.
1)대학여학생운동을 강화
2)지역여학생운동 강화
3)다양한 대학내 여성조직과의 공동투쟁 활성화.

2. 대학의 장기적 계획(향후 3년)을 수립하자.
.....단위의 장기적 계획 총화, 소모임 과여부, 현황 파악

3. 일꾼 혁신운동 - "향기나는 일꾼이 되자"
1)학습의 혁신
①매일 학습
②실천활동과 결합
2)투쟁의 혁신
①일상적으로 대중을 만나자. (수첩운동)
②가장 적극적으로, 대중의 정서에 맞게 대중을 만나자.
③언제나 여성민중의 투쟁의 요구에 맞게 대중을 만나자.
④전략전술, 전체투쟁과의 결합, 참신한 투쟁방도에 대해 항상 깊이 고민하자.
3)생활의 혁신
①전투적인 조직생활
②생활력을 드높이자.
③결사관철, 자력갱생, 낙천적 생활 기풍

4.새내기 사업에 목숨을 걸자.

5. 피라미드 사람사업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자."

6.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조직임을 인식하게 하고, 대학의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자.
①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 조직임을 인식하게 하자.
②대학의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자
③여학생운동 토론회를 만들어 보자.

2. 공통적으로 나서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과 과제 대안을 마련합시다.
(기본적으로 고민되는 것은 핵심일군들의 관성과 학생회의 관성적인 사업작풍, 초금일꾼들의 전문성,사상의식의 낮음, 경험의 부족, 정치실무적 자질의 낮음 등)

3. 핵심일꾼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핵심일군들부터 혁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4. 여기까지의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방중시기(7.8월)까지의 조직사상운동영역 사업계획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5. 이후의 조직국 회의를 어떤내용으로 가져갈까요?
기본적으로 고민되는 것.
- 8월 말: 6.7.8월 조직사상운동 평가.
하반기 조직사상운동 계획 수립

-10월 초 : 선거를 준비하면서 2002년 조직사상운동 평가.
2003년 및 장기적인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 대학의 조직사상운동에 대한 전망을 세우자.

※단위에서 준비해올것!
2002년 전여대협 총노선 자료집을 반드시 가지고 옵시다.
그리고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풍부하게 고민하고 옵시다.
그래야 회의가 짧고 굵게 끝나겠죠?

조직국회의 보고

전여대협 조직국 회의(1차)를 6월 1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늦게 총화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조직사상운동 중간 총화

- 2002년 전여대협 총노선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조직사상운동의 중간총화를 진행합시다

학교별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사상사업에 대해 중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도, 적극적인 집행도, 후속작업도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40일 비상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40일 비상을 대하는 자세에서 단위에서 관성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전까지 많이 제출된 '00일 전투'와 같은 사업계획이 또 제출되었구나 하는정도,
(반면에 절박성을 가지고 결의높여 시작을 한 단위들도 있었으나 주객관적 어려움들을 제때 제때 극복해내지 못함으로써 결의만 높았다가 오히려 패배감만 큰 경우와 깊은 반성 속에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이후에 60일 전투등을 계획하는 단위도 있다.)
중앙에서 기층까지 전일적인 높은 결심이 중요한데, 중앙의 결심이 기층까지 함의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정세의 엄중성을 기층에서 인식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6.15, 선거등)
여학일꾼들이 정세에 민감하지 못한 면이 있다.
언행 일치가 안되고 있다. 교양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활용조차 안되고 있다.

2. 공통적으로 나서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과 과제 대안을 마련합시다.

공통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1. 대학차원의 조직사상운동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 총노선조차 세우지 못하거나 세우더라도 깊은 고민과 풍부한 토론속에서 세워지지 못하고, 총노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점검조차 되지 않고 있다.
2. 조직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꾼들의 생활력이 떨어지고 조직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회의구도가 안착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과 투쟁의 흐름과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대중사업에 매몰되고 대중사업 또한 치르기식으로 진행이 되어 조직적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일꾼들이 자신의 성과를 찾지 못할 뿐아니라 서로에게 불신이 쌓이고 관계가 심각히 악화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3. 학습이 거의 안되고 있다.
조직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릴데 대한 노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현재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즉 기본적이 학습조차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별 주체가 있으나 국별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
4. 기층 건설(소모임, 과여부)
5. 핵심의 결의 , 핵심의 역할을 높이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주체와 분공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안: 핵심단련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중심은 조직사상운동이다. (지금까지 대중사업, 실무, 선전등이 비중이 컸다.) 주체는 이것을 명심하고 항상 조직사상운동중심에 두고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실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선전하기, 플랑 달기 등)

※ 한일꾼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 체계 논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 사업에 매몰, 전체 일정과 여러가지 일정속에 끌려 다니는 식 → 치르기식 사업

※ 분공, 주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국사업에 대한 정리, 역할 분담 확실히...
맡은 주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총화점검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핵심의 현황, 결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오래 활동을 한 핵심들의 경우, 경험이 쌓일수록 결의가 드높아지기 보다 개인적 고민과 함께 관성화되어가고 책임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핵심들의 결의와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스스로가 자신의 결의를 높이고 강제해야 한다. 그야말로 자신과의 싸움이 갈수록 간고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많은 실무와 같은 사업의 반복, 항상 제자리 같은 조직상황 속에서 자기운동의 발전, 성과조차 찾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책임감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핵심 스스로가 여학생운동의 고민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가야 한다.
대부분 저학번이나 처음 여학생운동을 접할때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된 기쁨, 뿌듯함, 분노 등으로 젊은이의 패기로써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해가 거듭하면서 경험이 쌓이는 만큼 더 높은 고민이 되지 않을 때는 정체되고 부수적인 고민들이 침습하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 오래 운동을 한 핵심들의 경우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조직사상 운동의 핵심으로 조직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으나. 자신보다 학습과 고민수준이 낮은 일꾼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내용을 정리해서 학습을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 그이상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실무적 부분까지 해야 하는 현실도 있지만 핵심들이 끊임없이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수준을 높여가지 못한다면 개인운동의 발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 또한 가져올 수 없으며 전여대의 운동 발전 또한 가져 올 수 없고 정체만이 계속될 것이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높여가기 위해 그에 맞는 학습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3. 핵심일꾼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핵심일군들부터 혁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현재 여학생운동에 몸담고 있는 모든일꾼이 핵심이다.(새내기 빼고)
핵심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힘든 시기임을 사실이다.
핵심이 유무가 조직 건설의 유무를 좌우한다.
그리고 핵심을 보면서 총여학생회 조직을 평가한다.
핵심들의 각성, 자기 역할을 똑바로 자각해야 한다. 여학생운동이 나에게 달렸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밤에 잠도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 매몰되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사업작풍의 혁신이 필요하다. 사무실 같은 분위기에서 사람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수업과 과생활에도 충실해야 한다.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서의 일꾼들의 혁신이 필요하다.
학습의 혁신이 필요하다.
3대 혁신 (학습, 생활, 투쟁)에 있어 핵심부터 모범에 서야 한다.
기층의 총화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결의를 세워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자주적 사업방법, 민중적 사업작풍을 내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민이 틀에 박혀있다. → 대중의 정서에 맞는 참신한 고민이 필요하다. → 요즘 새내기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잣대질 할 것이 아니라 새내기들의 정서와 긍정성(자주성)을 잘 발동할 고민을 하여야 한다.

1)핵심이라는 자각
2)사업작풍의 혁신 - 사람사업 (정서와 수준에 맞게 개개별 고민총화와 정치사업.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 생활에서부터 품성, 정리정돈된 생활 등 자기 생활을 잘 조직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는것
-3대 혁신운동을 모범적으로 진행하여야
3)대중의 정서에 맞게 - 틀에 박힌 고민이 아니라 참신한 고민
요즘 새내기들의 긍정성, 자주성을 잘 포착하여야
새내기들의 특성: 자주성이 강하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관심이 가고 옳다고 행각하면 뛰어든다.
4)학습의 혁신 - 학습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내야 한다.
-전문성과 사상학습의 배합을 잘 시켜야....
-자주적 사업방법과 민중적 사업작풍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

4. 여기까지의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방중시기(7.8월)까지의 조직사상운동영역 사업계획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학습>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까?
기층에서 학습을 하려고 해도(특히 새내기) 어떤 책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예전꺼는 너무 오래 되었고, 새로 나온 책중에 쉽고 재밌고 내용이 좋은 책등을 목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 여성학 강의, 새여성학 강의, 섹슈얼리티 강의, 수준이 되는 간부는 위험한 여성. 이 기본이다.
특별한 것은 없다.

→일단은 처음 여학생운동을 접하는 새내기들을 위해 여성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한 쉽고 재밌는 교양자료를 만들어 보자.

기지촌(옥희) / 성폭력(란) / 일본군'위안부'(은하) / 성상품화(우진) / 호주제 (민서)
:쉽고 재밌게, 실례를 중심으로...

성상품화에서 대중매체 비평관련, 성역할.....(민서)
<조직사업>
농활, 기활, 통선대, 여일꾼모임(종강파티),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조직사업을 해보자
특히 농활은 핵심을 발굴하는 유력한 공간이지만 여학생회에서 조직적 성과로 귀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주체의 교양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교양이 아니라 여성농민의 현실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속에서 여성문제를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 교양 시에 여농언니와 간담회를 해보면 좋을 듯 하다.

-성폭력 상담원 교육 (동아대)
: 농활 가는 시기, 오랜 기간 외박이 안되는 여일꾼들이 많다. 농활 기간을 활용해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는 상담원 교육을 받게 할 고민,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고민

-

<사상사업>

새내기 자료를 따로 제출
핵심들은 40일 비상 교양자료를 내실있게 진행 하자..

방도: 간부수련회(엘티), 집단 합숙, 주총화대회, (집중 학습기간, 야학형식 등...)
(합숙이 꼭 필요한 거 같다. 같이 먹고 자고 놀고... 친분도 쌓고.... 그러나 방중에 집나올 일정이 많아서 시기가 고민이 많이 됨.)

5. 이후의 조직국 회의를 어떤내용으로 가져갈까요?
기본적으로 고민되는 것.
- 8월 말: 6.7.8월 조직사상운동 평가.
하반기 조직사상운동 계획 수립 (3년 이상의 대학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최소한 해야 할 것들을 고민해오자.)

-10월 초 : 선거를 준비하면서 2002년 조직사상운동 평가.
2003년 및 장기적인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 대학의 조직사상운동에 대한 전망을 세우자.

- 여성학 학습도 병행하였으면 좋겠다.
중앙학습 진행 후 모임 1주일 전에 자료를 멜로 보내주면 모임때는 토론 중심으로 가져가자.)

※회의 총화
-초반부터 했으면 좋았겠다. 상반기가 다 지나간 시점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 반성이 많이 되지만 앞으로의 결의가 생긴다.
-많은 학교가 결합했으면 더 많은 학교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다.
회의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고 회의에 임해서 반성이 된다.
조직사상운동을 체계적으로 고민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잘 가다듬어야 겠다.
다른 학교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겠다.
-조직사상영역의 중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뒷전이었던거 같다. 조직사상사업을 가장 앞자리로 고민해야겠다. 지역 조직국 세로모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자주 못해서 안타깝다.
힘받는 자리였다.
-정세의 요구가 높다는 것에 답답하고 조급해지고 그랬었다.
다른 학교의 모범도 듣고 각성이 되는 자리였다.
이후 남은 시간동안 조직사상사업을 제대로 잘 해야 겠다.
-사실 부담이 크다. 다음 회의때는 많은 성과점을 만들어서 오자.

2차 조직국 회의

참석자 여성학T, 사상T ~~[illegible]~~ 전체정모 단위학생들이 단결정모?

I. 7,8월 조직사상운동 평가

1) 단위 총회

-7.8월 사업계획서(조사영역)을 중심으로 단위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 성과와 한계, 원인과 대책

2) 방중 새내기용 교양자료 검토와 평가. 대책마련

3) 주체 총화

- 활의 모범이 되면서 조직생활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였습니까?

-7.8월 가장 강조한 부분이 학습이었습니다. 조직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였습니까?

-개인의 운동에 대한(학생운동, 여학생운동) 고민과 깊이를 더해가기 위한 개인학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까?

..... 스스로를 돌아보고 원인과 혁신과제를 찾고 결의를 세워봅시다.

II. 하반기 조직사상운동 계획

1)단위의 장기적 전망과 계획 수립 공유.

2)하반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고민해 봅시다.

3. 학습

한국여성운동사에 대하여 토론을 해 봅시다.

자료: 개정판 여성학 강의 6장. 새여성학 강의 13장, 전국연합 여성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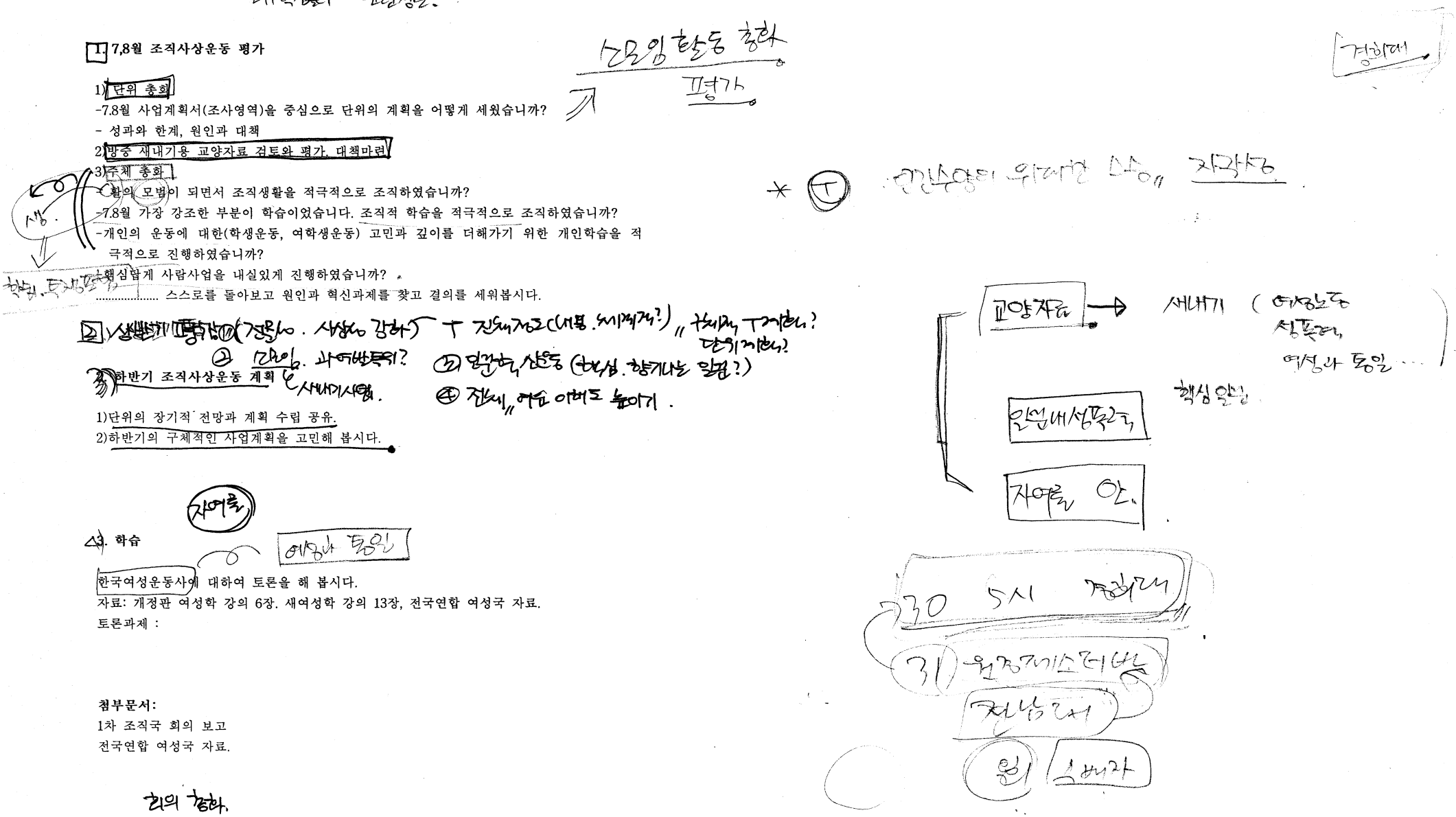
토론과제 :

첨부문서:

1차 조직국 회의 보고

전국연합 여성국 자료.

회의 종료.



2차 조직국 회의(안건 해설)

1. 7,8월 조직사상운동 평가

1) 단위 총화

-7.8월 사업계획서(조사영역)을 중심으로 단위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과와 한계, 원인과 대책

2)방중 새내기용 교양자료 검토와 평가. 대책마련

1차 조직국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새내기용 교양자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여학생운동을 처음 접하는 새내기들을 위해 여성문제를 보다 잘 인식하게 하기 위한 쉽고 재미있는 교양자료를 만들자고 했던 목표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활용은 잘 하였는지 검토하고 평가해 봅시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 정폭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또한 다른 내용들의 새내기들을 위한 교양자료도 만들어야 할지.....

글고 ~~중급 일꾼들~~에 대한 교양자료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봅시다.

3) 주체 총화

-객관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여학생운동의 전망과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와 대안을 주체에서 찾아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차 조직국 회의에서 단위의 현황을 진단하고 핵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1차 조직국회의 보고서 첨부). 전여대협의 핵심중의 핵심일꾼들인 조직국 회의 성원들은 1차 조직국 회의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주체총화를 간단하게 진행해 봅시다.

-총화 틀

.....생활의 모범이 되면서 조직생활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였습니까?

.....7.8월 가장 강조한 부분이 학습이었습니다. 조직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였습니까?

.....개인의 운동에 대한(학생운동, 여학생운동) 고민과 깊이를 더해가기 위한 개인학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까?

.....핵심답게 사람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였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원인과 혁신과제를 찾고 결의를 세워봅시다.

2. 하반기 조직사상운동 계획

1)단위의 장기적 전망과 계획 수립 공유.

1차 조직국회의 속에서 각 학교마다 조직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으나 장기적,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것을 한계로 짚어내었습니다.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성과가 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02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03. 2004년에 더욱 많은 성과를 내어오기 위해 지금 얼마만큼 해놓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2~3년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2년 하반기에 반드시 해야할 것들을 고민해 봅시다. 먼저는 전여대협 총노선 조직사상운동 영역을 참고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단위의 계획을 수립합시다.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하반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고민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고민되는 것은 아직까지 기층의 허약, 일꾼 재생산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조건,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하반기에 대중사업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단위마다 하반기 대중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이 대중사업이 어떻게 조직,사상운동의 성과로 귀결되도록 할 것인가입니다.

또한 하반기 정세와 맞물려 내용을 잘 담아내기 위해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대중사업과 조직사상사업의 결합

대중사업은 일꾼들을 단련시키고 대중속에서 일꾼을 발굴하는 유력한 공간입니다.

일꾼들을 단련시키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중사업에 담아낼 내용을 잘 잡고 풍부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학습과 토론을 내실있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을 그냥 대충 반복하듯이 하는 것은 대중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여학생회 조직의 발전, 일꾼 개개인의 발전도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대중사업에서 정세의 요구와 학우들의 요구는 어떤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풀어내기 위한 학습, 토론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사업화 하기 위한 참신한 방도들을 창조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대중속에서 일꾼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잘만 진행하면 많은 조직적 성과를 남길 수 있는 방도가 바로 대중사업 준비단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단을 어떻게 모집하는 가가 중요하겠죠? 있는 일꾼들에 준비단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준비단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중사업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과 상이 나오면 중운위와 단운위에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도 잘 안되고 있죠? 암튼 기본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공략해야할 곳은 과입니다. 단운위에서 여학생회 사업의 의의와 목적 내용등을 잘 풀어내고 함께 할 것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단에 과학우 한명을 결합시킬 것을 이야기 합니다. 어떤 과 몇 개과를 공략할 것인가는 단위 상황에 맞게 해야 겠죠?

그리고 대중적인 모집도 진행합니다. 소자보나 화장실 신문이나 유인물 등으로 관심있는 학우들에게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해야 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기본 대중사업의 내용을 학우들의 요구에 맞는 것으로 잘 잡아야 할테고 소자보, 화장실 신문등에 글을 실을때도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게 자알~~~ 실어야 겠죠.

그리고 준비단이 모집이 되면 구체적인 기획안을 참신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신한 기획안을 내어오기 위해 준비단의 교양과 토론을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발굴된 대중이 의식화된 일꾼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여기까지는 제가 드는 고민들을 두서없이 써놓은 건데요. 대중사업에서 조직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도, 대중사업이외에도 2002년 하반기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안등을 많이 많이 고민해 와주세요.~~~

3. 학습

한국여성운동사에 대하여 토론을 해 봅시다.
자료: 개정판 여성학 강의 6장. 새여성학 강의 13장, 전국연합 여성국 자료.
토론과제 :

첨부문서:

1차 조직국 회의 보고
전국연합 여성국 자료.